


 코스피	 코스닥
8476.15 (+290.86)	1074.80 (-29.56)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731 (-0.035)	1504.80 (+2.00)

삼성·하이닉스 등
K-반도체
HBM 발열 잡는다
02



내란 청산·민생 온기... 'K-브랜드' 확립

이재명정부 1년

확 바뀐 대한민국

'3대 특검' 1호 법안 의결 비상계엄 가담자들 '단죄' AI산업 3대 강국 도약 위해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첫발을 내딛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국정은 반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위태롭게 출발했음에도,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외교·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내란을 청산하며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를 확립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 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성격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4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다. 이는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6월10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란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뒤에서 수사를 괴했던 건권희 씨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또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약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민생경제에 급히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란·탄핵 국민 6개월 간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은 내수 심리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동시에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왜곡된 자본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

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에너지 대전환 등 비전을 앞세워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AI 산업을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2030년까지 공급받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이런 정책 효과와 세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했다.

<4면에 계속> (사본 기사 syj@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co.kr



"올리브영 美 1호점, '글로벌 진출' 위대한 시작"

이재현 CJ그룹회장
美 LA 패서디나점 찾아
상품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
수출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국 내 주요 사업 거점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현장경영은 개별 사업장의 성과 점검을 넘어 식품, 콘텐츠, 뷰티 등 그룹의 핵심 사업 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북미 시장 내 'K라이프스타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최초의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인 로스앤젤레스(LA) 패서디나점을 찾아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과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회장은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올리브영 미국 1호점(캘리포니아)을 방문해 북미 현장 경영을 하고 있다. /CJ그룹

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라며 "K뷰티와 K웰니스를 넘어 미국 고객들의 일상 속에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경영에는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 그룹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은 국내 매장의 표준 포맷을 기반으로 하

되, 한국식 스낵케어 루틴과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미국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특히 전채 400개 브랜드, 5000여종의 상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지 올리브영 MD 팀장은 "이번 미국 오프라인 매장은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K뷰티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소비자와 만나는 전략적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기존 서양 뷰티 매장은 상품 구성이 다소 획일적이었으나, 이곳은 익숙한 브랜드부터 새롭고 신선한 브랜드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현지 매장의 고유한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어 인상적이다" 등의 반응

이 이어졌다.

CJ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핵심 상권을 구축한 뒤 동부와 중남부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비고·뚜레쥬르·KCON 등 그룹 내 식품·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시너지를 극대화해 '콘텐츠 소비'→K컬처 호감도 상승→K푸드·K뷰티 구매'로 이어지는 'K라이프스타일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식품미주법인을 7년 만에 찾았다. 지난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 인수 이후 그룹에 편입된 현지 임직원들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K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한은·美 연준 '금리 인상' 무계추

韓 GDP전망 2.6%로 상향 등 '금리 인상' 명분 강화 요인

중동발 물가 충격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공시화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될 경우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언제 내리느냐'에서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문에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표현을 넣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도 기자회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고 밝혔다. ◆ 인상 신호 '선명' 한은의 변화는 경제전망에

서 드러난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증시 호황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물가 전망도 크게 올라갔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상향했다.

<3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선거 마지막 주말... "李대통령에 힘 실어아" vs "李 폭주 투표로 멈춰야"
▲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에 野 "선거 개입"
/사진 뉴시스

▲ 정원오 "헌 시장 바뀌달라...尹 폭정때 아무말 못해"
▲ 오세훈 "시민 권익 수호자 필요...5대 명령 관철할 것"

▲ 정부, 녹색소비주간 전국 개최...6월 30일까지
▲ 농촌진흥청, 폭염중대경보 신설...발령 시 야외 농작업 중단